

300-2-088. 신문조서(金科全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

- 金科全·兪鎮熙·獨孤侄·陳秉基·朱鍾建·尹德炳·徐廷禧 등에 대한 治安維持法 위반사건 내용의 기록과 金尙珠·朱鍾建·金在鳳·金燦 등 19명에 관한 사항 수록
- 위 사람들은 日本帝國의 組織, 制度가 資本主義 제도라고 하고, 全朝鮮 左傾思想主義者의 元老들로서 1925년 4월 17일 朝鮮共產黨을 조직, 執行委員으로 金科全(若水)·兪鎮熙 등 7명을 檢査委員으로 하여 尹德炳·曹奉岩 등을 모스크바 국제공산당 세포로 삼아 자금급여를 받아 공산주의 선전에 노력하였다. 洪增植은 1925년 4월 18일 朴憲永 등과 함께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공산당은 실행단체, 고려공산청년회는 교양단체로 활동했다. 따라서, 18명 사건은 치안유지법 1조 위반이라 하여 1925년 12월 14일에 송치되었다.
 - 朴憲永의 聽取書는 12월 13일에 작성되었고, 金若水·金在鳳·兪鎮熙·金燦·曹奉岩·趙東浩 외 10명은 12월 14일 검거보고가 있다. 兪鎮熙는 12월 14일에 청취 조사한 바 있다.
 - 洪增植·陳秉基·徐相郁·崔允鈺·徐廷禧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2월 14일에 있었고, 金尙珠·兪鎮熙·朴憲永·林元根 등의 2회 청취서 작성은 12월 15일에 있었다.
 - 朱鍾建은 12월 15일, 金科全은 12월 16일에 피의자 신문조사가 실시되었다. 金尙珠의 3회 청취서 작성은 12월 16일에 실시되었다.
 - 金科全의 2회 신문조사는 16일, 徐廷禧·朱鍾建·洪增植은 17일에, 尹德炳은 18일에 1회, 19일에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실시되었다. 金科全의 3회 신문조사는 12월 18일에 실시되었다.
 - 金科全 등 18명은 1925년 12월 21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에게 送致되었다. 12월 21일부터 金科全 등에 대한 1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朱鍾建·徐廷禧·尹德炳·徐相郁·崔允鈺의 신문조사는 22일에 실시되었다. 金科全의 4회 신문조사는 12월 21일에, 李鳳洙의 청취서 작성은 12월 31일에 있었고, 각자의 보석신청은 却下되었다.